

나를 가둘 수 있는 감옥, 덧창 오던 날



이상희

혼자가 아닌 채로만 여섯 번째 이사 끝에 내 뒀이 된 지금의 작업실은 창 너머가 다용도실이다. 처음엔 그것이 무척 우울했다. 여성작가의 가정 안 집필실이라는 것 자체가 집중하기 힘든 구조인데, 벽 절반을 차지하는 창 밖으로 잠동사니 살림이 훤히 다 보이다니! 작업실 조건으로는 치명적이었다. 이런 경우 대개 커튼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간단히 사태를 해결하지만, 언젠가부터 내가 커튼이라는 것에 무척 까다로워졌다는 것도 문제였다. 내 마음에 들 만한 색상과 질감과 형태로 맞춰 달자고 들면 터무니없는 비용이 들어야 하는 것이다. 그렇다고 방안 분위기를 적잖이 차지하는 그것을 아무것이나 갖고 늘어뜨릴 수도 없었다. '다용도실을 완전히 가리면서도 환기가 될 수 있게, 그러나 아주 막아버리지는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'

그런 궁리를 하느라 몇 달을 창 가득히 명화 달력을 날날이 뜯어 붙여 놓고 버텼다. 창문한테도 나한테도 '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야,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!' 라는 시위의 뜻이기도 했다.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수없이 그 꼴을 참지 못해 방을 뛰쳐나왔는지 모른다. 이것저것 자료 책을 한 짐 싸들고 거실로 나와서는 식탁에 앉는다... 낡은 노트북을 펴놓고라도 원고를 두드려보자는 것이지만, 가재도구에 쌓인 먼지가 눈길을 앗아가고 시들어 가는 화분이 눈을 찌른다... 어떻게 간신히 집중이 된다 싶으면 또 어느새

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때가 되어 부라부라 보따리를 싣는다...

그러면서도 나는 시시때때 창문을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. 인터넷으로 원고자료를 찾는다면 옆길로 새어서는 검색 창에다 '창문' 이라고 쳐 넣기도 여러 번이었다. 창문 문제만 해결되면 밀린 원고들도 술술 풀리리라, 대책 없이 소원하고 낙관하면서.

궁리 끝에 떠오른 해결책은 창문에 덧창을 달자는 것이었다. 사각 틀에 다 나무 가로대를 어긋하고도 촘촘하게 지른 하얀색 덧창! 원고료 한 건이 들어오길 기다려 목수를 불렀다. 인터넷에서 찾아낸 덧창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당부했다.

"안쪽 창문 하나를 들어내고 이런 덧창을 달아주세요. 바깥이 안 보이게, 환기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."

목수는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열흘 뒤를 약속하고 돌아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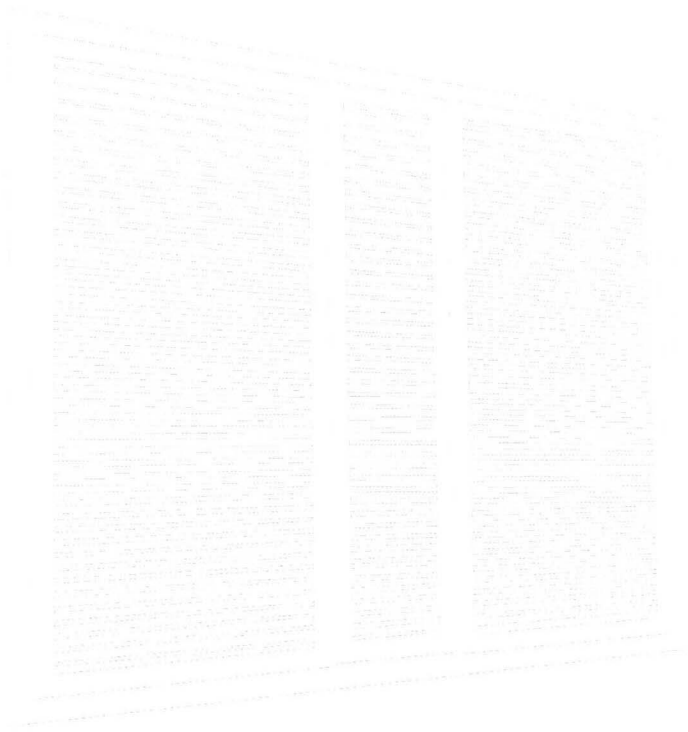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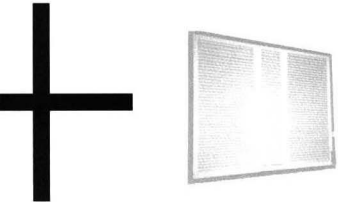
이제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다. 내 눈에는 이미 하얀 덧창이 달려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. 원고마감 시한만 까맣게 적혀 있던 일정표에 '덧창 오는 날' 을 써넣고 나니 위로가 되기도 했다.

그 날이 닳았다. 목수는 내 숨씨 한번 보라는 듯 뽀내는 얼굴로 들어섰다. 그러고는 다시 나가서 덧창을 들여왔다. 그런데 이런! 내가 보여주고 그려준 그 덧창이 아니었다. 위쪽의 한 뼘 정도만 나무 가로대를 지르고 나머지는 이른바 '프렌치 도어' 라고 하는 양옆으로 여는 창문을 잔뜩 멋을 부려 만들어 온 것이다.

"어때요? 이쁘게 잘 나왔지요? 이런 건 카페에나 해주는 건데... 칠도, 특별히, 아주, 여러 번 올린 거예요!"

나는 괜히 목이 메어서 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.

"여긴 카페도 아니고... 제가 원한 것도 이런 게 아니에요. 저 창 밖이 안



보여야 된다니까요. 아주 막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”

“그러면 답답해서 못 써요. 방이 얼마나 어두워진다고요. 눈 다 버린다니까요!”

부득부득, 목수가 덧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서, 내가 주문한 덧창의 목적을 줄줄이 쏟아놓았다.

“저기, 이 방은요, 제가 저를 가둘 수 있는 감옥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답답해도 상관없고, 아니, 오히려, 답답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만들어 오신 게 틀림없이 예쁘고 멋있긴 하지만, 저한테는 소용없어요. 제발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.”

목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우두커니 서서 혀를 찼다. 중얼중얼, 골난 목소리가 내뱉는 말을 새겨들어 보니 맞춤이라 어디다 되팔 수도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였다. 하긴, 공이 여간 든 게 아닐 것이다. 페인트 값이며 나무 값도 어지간히 들었을 것이다. 나는 두 눈 질끈 감고 지갑에서 만 원짜리 석 장을 꺼냈다.

“이건 제가 푹푹히 설명 못 드려서 치르는 값이에요. 양쪽 다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.”

목수는 수긋해져서 돌아갔고, 나는 며칠을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다. 어디서 프렌치 도어 비슷한 것만 봐도 화가 치밀었다. 내 방에는 책이나 파일을 가지러 들어갔다가도 곧장 나와버렸다. 창문 쪽은 쳐다보지

도 않았고, 덧창 따위 까맣게 잊어버리려 애썼다. 식구들이 눈치를 주든 말든 식탁 한쪽에서 일했다. 나도, 목수도, 며칠이 지나도록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.

나는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. 목수가 그 요상한 카페 창문을 들고 돌아간 지 며칠 만인지도 알 수 없는 어느 날,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목수가 서 있었다. 일부러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는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간신히 인사하는 시늉만 하고 식탁에 가서 하던 일을 했다. 목수 혼자 내 방에 들어가 못질을 하고 나사를 박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끝내 들여다보지 않았다.

그때 나는 꽤나 겁났던 것 같다. 또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... 삼세번이라고, 한 번 잘못된 것은 꼭 두 번 세 번 잘못된다는데... 그런 불안을 밀쳐내느라 안간힘을 쓰며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. ‘이만 가보겠습니다’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다. 허둥지둥 값을 치르고 배웅을 하고 문을 걸었다. 그리고서도 미적미적 판전을 피우다 방에 들어갔던 것 같다.

아아, 덧창은 완벽했다. 내가 원하던 것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었다. 창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감쪽같이 차단되면서도 그다지 답답하지도 않았다. 덧창 뒤 유리창을 열어놓으면 다용도실 바깥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느껴졌다. 원래 있던 창틀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쪽 들어가게 짠 것도 마음에 들었다.

그제야 내 방은 글 쓰는 감옥, 작업실로 인정이 되었다. **작**

작

이 글을 쓴 이상희는 시인으로 시와 그림책 글을 쓰고 있다. 그림책 《외딴 집의 펭 손님》《게으름뱅이 빠꾸기》《토마토 씨앗》《도술산 선운사》 등을 썼고, 옮긴 책으로 《난 그림책이 정말 좋아요》《심프》《바구니 달》 등이 있다.